



| 성가정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요, 캔버스에 유채, 1650년, 스페인 프라도박물관 소장>

금주의 성화

무리요가 그린 성가정에는 특이하게도 후광이 없다. 세 분은 모두 17세기 서민의 옷을 입고 계시며, 성모님께서 갖고 계시는 물레나 요셉 성인의 뒤쪽으로 보이는 목공 기구들도 당시에 흔히 쓰이던 것들이다. 다시 말해 무리요는 그 시절 어디서나 볼 수 있던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그림에서 예수님을, 성모님을, 그리고 요셉 성인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 터이다. 아마도 무리요는 성가정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보통 가정에도 재현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 오늘의 전례

부모는 율법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 (루카 2,41-52 참조)

성가정이 거룩한 까닭은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식구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도 예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성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성체를 모시고 있으니 이미 주님께서 우리 집안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밥상에 앉으면 주님께서 함께 앉으시지 않겠습니까?

제1독서 집회 3,2-6.12-14 제2독서 콜로 3,12-2 복음 루카 2,41-52

화답송 © 주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시다 • 12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매일 작은 보속을 바칩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



박상준 가브리엘 신부 | 대건고등학교 교목실장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일 년에 한번 특별 사면의 날이 있는데, 이 날에는 염라대왕이 피고를 원하는 곳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세 명이 평생 기록을 잔뜩 짊어지고 염라대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매우 운이 좋은 자들이구나. 오늘은 내가 특사의 은전을 베풀어 가고 싶은 곳 어디라도 보내 주는 날이다. 어디 말해 보거라.” 첫 번째 피고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당도, 지옥도 다 싫습니다. 이승에서 한 번 더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누구처럼 정치권력을 18년쯤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염라대왕은 “그래? 그건 일도 아니지.”하며 즉각 소원대로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고, 그도 이승으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수조 원대 재산의 재벌로 환생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역시 뜻을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 피고도 이승행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달랐습니다. “저는 앞의 두 사람들처럼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다섯 식구가 끼니 걱정 없이, 건강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평화롭게 한 70평생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은 부모 속을 썩이지 않고 제 앞가림만 하면...” 이때 갑자기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뺨을 냅다 후려치면서 호통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지, 널 주겠냐?”

우스개 이야기이지만 가족의 중요성을 잘 이야

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지만 결국 가족만큼 중요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예수님의 성가정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성가정과 같은 가정을 만들며 하느님께 우리의 가정을 봉헌하도록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가정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성가정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오히려 그 반대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며 다른 일들에 더 바빠서 오히려 가족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부모가 바쁘다보니 학교나 성당에서 내 자녀를 잘 길러주고 부모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오로지 부모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느님 앞에서 묵상하며 다시 한 번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가정 성화 주간**

가정성화주간 특집

자녀들에게 천국의 기회를!

김종섭 토마스 신부 | 교구 가정담당

아주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부부 싸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가슴에 서늘하게 남아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분노에 가득 찬 말들이 오고 가고 울고불고 덜덜덜 떨던 누나들과 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는지 그런 것은 모릅니다. 기억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장면들이..., 그 살벌하고 지옥 같은 감정의 각인이 남아있습니다. 벌써 30년도 더 지났지만 잊히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주일이면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십니다. 늘 일하실 때 입으시는 옷만 보다가 주일만 되면 아버지는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머니는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 엄마가 언제 저렇게 멋있고 이쁘셨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또 씨와 마리아 씨'는 주일 미사를 갑니다. 그리고 보니 언제부터인지는 몰라서 부모님께서는 서로를 "비또 씨", "마리아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부모님께서 서로 부르시는 목소리가 귓불을 간질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서로를 애타게 부르시던 그 목소리를 저



교구 가정담당에서는 가정 성화를 위한 사목의 일환으로 <성모 마리아 어머니학교>와 <성 요셉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4살 이전의 기억 같습니다. 대구로 이사 오기 전이니까요. 5월의 햇살 속에서 낮잠을 자고 깨고 있는데 천국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 노래를 어머니께서는 따라 부르시면서 집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신학생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천국같은 노래가 복음성가였다는 것을.... 꿈인지 생시인지..., 그 천국의 기억이 지금도 저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천국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옥 같은 경험이라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설 수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품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는 바로 이런 부모님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성가정을 이루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가정성화주간 담화문(요약)

복음적 삶으로 거듭나는 가정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가정 축일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 성화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주간에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의 모습을 새로이 성찰하고, 복음적 가치관으로 거듭난 가정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스며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는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통해 하느님께서 바라신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의 내밀한 공동체’라는 표현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혼인하면 저절로 탄생되는 공동체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일생동안 긴 사랑의 여정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법적 차원을 넘어 무조건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인 가정은 특별한 은총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고, 굴곡 많은 가정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어디로 성장해 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길잡이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해에 우리는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신앙의 은총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정이 먼저 ‘복음적으로’ 쇄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 삶은 ‘하느님 뜻과 구원계획에 반대되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쳐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정적 경향 가운데 하나는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세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증과학에 대한 맹신과 물질만능의 사조들도 인간의 실존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엄청난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술력과 지식 정보가 한 가정의 깨어진 화목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부와 세속적인 능력이 인간의 삶을 올바른 가치관과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정은 복음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살아가며 의미가 충만한 가정,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교 가정은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애써 찾은 신앙의 보화를 묻어둔다는 것은 곧 복음을 묻어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으로 쇄신되어 살아가는 가정은 자녀들이 함께 인생의 참된 가치를 체험하도록 신앙의 보화에 깨어있는 가정입니다.

자녀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수 없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들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욕구가 그 모든 가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정문제에는 부모들의 경제적 탐욕과 출세지향의 세속화된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부모들의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자녀의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성숙의 중요성을 실천적으로 독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가정들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가정들이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쇄신됨으로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참으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황 철 수 주교

햇살 담은 이야기 - 마음으로 읽는 삶의 단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자기 작품에 항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어느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리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자기가 찾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식을 끝마치고 나오는 신혼부부를 발견하고 신부(新婦)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신부는 주저함 없이 “그거야 사랑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지요”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화가는 즉시 캔버스를 내려놓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 얼굴에 빛나는 사랑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피곤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 군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군인은 화가의 물음에 지체 없이 “평화가 제일 아름다운 것이지요. 전쟁은 고약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는 맹렬한 싸움이 있었던 전장이 황금 같은 곡식으로 덮이고 농부들이 노래 부르며 추수하는 모습을 그렸지만, 그의 마음은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어느 성직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 성직자는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을 통해 용서받고 희망을 발견한 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를 만족시킬만한 아름다움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화가는 결국 아름다운 것을 찾고자 하는 희망을 포기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그의 어린자식들이 그를 보고 달려와 두 팔로 목을 끌어안고 돌아온 아버지를 반겼으며, 아내는 따뜻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밖에서 무사히 돌아온 아버지를 위하여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화가는 그의 자녀와 아내의 얼굴에서 사랑과 평화와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까지 찾아 헤맨 아름다움이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정>이라 불렀습니다. **가톨릭**

금주의 성인 **성 대 바실리오**

성 대 바실리오 (1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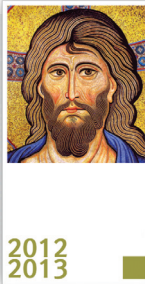
바실리오 성인께서는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가문 중 하나로 가족 모두가 성인 성녀가 되신 성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제로서 학문과德行에서 특출하셨던 성인께서는 주교가 되시어 이단과 맞서 싸우셨으며 동방 수도원의 시조로 수도원을 설립하기도 하셨습니다. 교구를 책임지는 대주교로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사업과 열정적인 사목활동을 펼치시다가 병을 얻어 선종하셨습니다. 위대한 신학자요 설교자이며, 타고난 저술가인 성인께서는 교회학자로, 동방 회수(會修) 생활의 아버지로 큰 공경을 받고 있다.

■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교구장 대주교님 예방



성탄 축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이 12월 18일(화) 교구장 대주교님을 예방하였다.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의 유래, 동짓날 팔죽 애기 등 환담을 나누시고, 성문스님은 백제 금동대향로 모양의 향로와 벨벳 목도리를,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교구에서 만든 수첩과 달력을 선물하였다.

‘신앙의 해’ 기념
영성사진 콘테스트



‘신앙의 해’ 기념
신앙수기 공모전



1. 공모주제 :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2.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3. 공모기간 : 12. 11. 25.(일) ~ 13. 10. 31.(목)
4. 출품방법 : 공식 응모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http://contest.daeguujubo.or.kr>)
5. 문 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8, 3074

1. 공모주제 :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체험
2. 참가자격 : 교구 내에 교적을 두고 있는 가톨릭 신자
3. 공모기간 : 13. 1. 1.(화) ~ 13. 2. 28.(목)
4. 출품방법 : 월간 <빛> 홈페이지
(<http://www.lightzine.co.kr>)
신앙수기 공모 코너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5. 문 의 : 교구 월간 <빛> 편집부
(053) 255-8405, 250-3157

※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공식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귀찮아도

박성규 엘리지오



피정 | 성소

아프리카 들꽃마을 후원회 아가페 월피정 (미사, 강의)

일시: 1.2(첫 수요일) 14:00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

지도: 최영배(비오) 신부

문의: (010)4804-7574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1.5(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천상의 어머니와 우리가정의축복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1.4(금) 18:00~6(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새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오씨예(Oh! See-Jesus)젊은이 일일피정

일시: 1.13(일) 10:00~18:00

장소: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바틀로 교육 센터(파동)

대상: 35세 미만의 미혼 남, 여

신청: (010)5517-8833 / 1만 원

이해인 수녀님, 정호승 시인과 함께하는 제주도 눈꽃 피정

기간: 1.31(목)~2.2(토)

문의: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064)796-4181(선착순 마감)

참가비: 23만 원(항공료 제외)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1.13(일) 14:00, 장소: 과천본원

문의: 김 라우렌시아 수녀

(010)5449-3166

교육 | 모집

젊은이모임 옛 멤버를 초대합니다

(70~80년대)성모기사회 옛 멤버들 초대

일시: 1.6(일) 14:00

장소: 곤벤뚜알프란치스코회수도원

문의: 박상규신부, (010)5380-8615

13학년도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2(수)~11(금)

분야: 21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대가대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모집: 12.17(월)부터 개강: 1.7(월)부터

과정: 일반 과정 (취미, 자격증)

음악원 (성가대지휘, 1:1레슨 등)

문의: 660-5554~7

2013 보육교사 양성과정 신입생모집

2013년도 보육교사자격증 취득

보육교사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문의: 대구가톨릭대 보육교사교육원

850-3056 / 3366

노들담오르프 단기 지도자 과정

기간: 1.7(월)~9(수) 9:00~18:00

장소: 상인동 소화어린이집

문의: (010)7392-1227 / (010)9034-4911

양업고등학교 신나는 겨울캠프

기간: 1.17(목)~19(토) 2박 3일

장소: 교내 대상: 중 1~2학년

문의: (043) 260-5076

<http://www.yangeob.hs.kr>

접수: 1.7(월)~11(금)까지 선착순

2013 목포가톨릭대학교 편입생 모집

간호학 일반 6명, 학사 6명, 전문학사 9명

사회복지학 일반 1명, 유아교육 일반 2명

기간: 1.2(수)~9(수)

접수: 유웨이, <http://www.uway.com>

문의: (061)280-5102~3, 8

미사안내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12월 31일(월) 오전 11시	수성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월 5일(토)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성당 (월배성당 뒤쪽)
첫 토요 신심미사	1월 5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 개인을 존중하는 교육문화
- 가톨릭 인간관, 사회관에 근거한 교육내용
- 실천을 지향하는 교육방식

교구청 내 가톨릭교육원 가동(3층)
☎ 053)255-7222

**새하늘 새망을 여는
신자가정을 위한 **빛** 줄함**

월간 '빛'은 다양한 모임과 선교에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문의 (053)252-5392

한결같은의원

가정의학과 / 소아과 / 피부과 / 내과
레이저클리닉 / 보톡스 / 필러

053)965-1441
반야월 이마트내 2층·원장 문세민 스테파노

해아림한의원

뇌기능검사훈련 / 집중력 / 우울증
공황장애 / ADHD / 틱 / 키성장

NAVER 해아림한의원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승원학원옆

미소나리 출장뷔페

예약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힐 박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어지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전문/원장 **박 국 욱(바오로)**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서대구 미르치과

대표원장 **박 상 준(안셀모)**
미국 Loma Linda 대학교
치주(잇몸치료/임플란트) 임상조교수 역임

달서구 감삼동 61-5 (2호선 감삼역 1번출구)
☎(053)628-1100

**코리아알트만
결혼평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법원방향
코리아
알트만
법원
그랜드
호텔
황금네거리

지하철 2호선 범여역 4번 출구 법원 방향
TEL 743-4488 FAX 744-1594

제22회

성 이운일 요한제에 초대합니다

9일 기도미사:

1.12(토)~20(일) 15:00

순교기념미사: 1.21(월) 17:00

주례: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가톨릭근로자회관

1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1.3(목) 19:00~20:30, 월 3만 원

과정: 창세기, 마르코 (화, 목 저녁)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스페인어 기초반 모집(대상: 성인)

개강: 1.15(화), 16(수) (3개월)

시간: 화 (10:00~12:00)

수 (19:00~21:00)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대구가톨릭대학교 2013편입학 모집

교과부 주관 대형국책사업 "3관왕"달성

2014 개교 100년을 맞는 전통의 명문대학

의/약/보건/생명과학 분야 특성화 대학

일반편입 186명, 학사편입 157명 모집

접수: 1.3(목)~8(화) 문의: 850-2580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 및 특수대학원(경영, 신학, 보건

의료, 디자인, 국제·다문화, 음악)

접수기간: 1.3(목)~10(목)

문의: 850-3637 / 660-5512(특수)

<http://www.cu.ac.kr>

겨자씨 성서 2013 수강생 모집

구약반: 월 (20:00) / 금 (10:00)

신약반: 월, 목 (10:00), 월 (20:00)

연구과: 월 (10:00), 수 (20:00)

문의: 625-4627 / (010)6520-4627

가톨릭문화관 교육생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오카리나, 대금,

우쿨렐레, POP, 초크아트, 톨페인팅

제48기 신앙의 해 선교대학

일시: 3.16(토) 10:30~16:00

지도: 이판석 신부 장소: 계산문화관

주제: 선교하며 신명나게 살아요

신청: 선착순 50명(신청비, 중식-무료)

주관: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채용

동인천주교회 실험 여직원 채용

서류: 자필이력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자격: 신입 (경력자 우대)

문의: 423-7220

안내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박재길(안셀모), 천희정

행사 | 모임

2013년도 동계 사제 성소 피정

중3~고2: 1.8(화)~10(목), 청통수련원

고3·대학일반: 1.15(화)~17(목),

한티피정의 집

(2013학년도 기준,

예비신학생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신청: 각 본당 사무실 마감: 1.2(수)

미용인의 모임 빛

일시: 12.30(일) 20:30

장소: 상인성당

활동내용: 송년 감사 및 성시간

문의: (010)8397-9783

교육 | 모집

제5기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

기간: 1.7(월)~11(금)

이시우 신경외과
<http://적주외과>
척추내시경, 현미경레이저, 디스크수술
(척추수술 5,000례 시술)
☎ 652-0119 원장 이시우(요한)
내당역 3번 출구 앞 반고개에 위치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 대형전용주차장 완비 / 여성전용병실
한글시원한문원
한글·영어·국어·과학·논술
의약박사 병원장 노성균(이우구스트노)
☑ 체크하세요!
☑ 위내시경 ☑ 항문(치질)수술
☑ 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www.hangmun.com 959-7175
위·대장·항문 클리닉·건강검진·내시경·암검진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최고의 원조맛을 고집하는 김의 명품
서해안 청정바다 명품 김 — **이조맛김**
성전간담기름마른 및 바지락, 성모회·자모회 등 각종단체 기금모음
이경숙(모니카) 010-4123-5353
광천본사 : (041)641-3838 대구지사 : (053)255-3836
한개라도 배송해드립니다. 5만원 이상 배송비 무료

전문과외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논술
소리, 언어, 과학
고등부·고3수능·재수생·중등부
◆ 서울권 대학
◆ 과목별 전영제 수업
1:1 맞춤 방문수업 원장 주영혜(안젤라)
신뢰와 믿음의 서울교육원
T.256-6300

그랜드 통증의학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정승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 학 박 사
현, 연세대학교교수 원장 박 중 원(소시오)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안심함이 함께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성가요양원
성가어르신복지센터
임소성 가요양원 054)976-8122
문의 성가어르신복지센터 054)976-8123
<http://www.sug.or.kr>